

“불은 모든 형상세계의 근원”



◇자연의 불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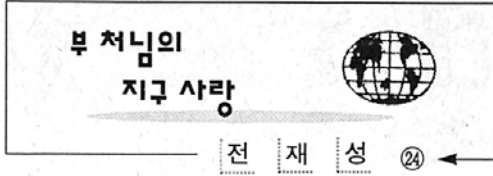
불의 생태계

부처님은 불을 어떻게 보았을까? 중부아함경의 상적유대경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붓들이여, 무엇이 불의 세계인가? 내부의 불의 세계와 외부의 불의 세계가 있다. 붓들이여, 무엇이 내부의 불의 세계인가? 몸안에 개체적으로 존재하며, 불이나 불과 같은 것, 그것에 의해 존재하는 것, 예를 들어, 그것으로 열이 생겨나고, 그것으로서 녹으며, 그것으로서 연소되고, 그것으로서 삼키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 올라

로 변화시키는 것, 그 밖에 몸안에 개체적으로 존재하며, 불과 같은 것,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붓들이여, 이것이 내부의 불의 세계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내부의 불의 세계와 외부의 불의 세계를 불의 세계라고 부른다.”

따라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세계의 에너지와 외부세계의 에너지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불에 관한 아주 놀라운 부처님의 통찰을 반영하는 것이다.



외부세계의 불 가운데 자연의 불은 다른 상태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체의 활동에 필요한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부처님은 기세경에서 불의 대신이 “불의 세계안에는 땅, 물, 바람의 세계가 없다”라는 나쁜 생각을 일으켰을 때, 부처님은 그를 질책하여 “대신이며, 그대는 이제 그와같은 나쁜 생

태양은 생명체에 산소·당분등 공급 소화·흡수·성장력은 몸속 불의 작용

각을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불의 세계 안에는 실제로 모든 땅, 물, 바람의 세계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불을 측정하는 것은 온도나 에너지의 양으로 측정한다. 만약에

생명체는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땅 1g과 물 1cc 속에도 수억의 미시적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것이 태양열이다. 태양열은 지상에 도래하여 모든 생태계를 생성·유지시키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햇빛은 지구상에 도달하여 녹색의 엽록소를 가진 식물과 물(H₂O)과 공기중의 탄소(CO₂)와 반응하여 당분과 산소(O₂)를 만들어 내는 광합성 작용을 일으킨다. 이 광합성이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엽록소 + 탄소(CO₂) → 산소(O₂) + 당분 + 햇 빛

동물은 살기위한 에너지를 햇빛을 받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식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조달받아 생활한다. 그리고 동식물이 죽었을 때에는 곰팡이나 미생물들이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들을 물과 탄산가스 및 미네랄등으로 분해시킨다.

우리 몸 안에서의 내부의 불인 소화·흡수·성장등에 필요한 에너지도 역시 광합성의 태양에너지가 원천이다. 이 에너지가 식물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연에서의 외부의 불과 내부의 불은 순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회사원인 조소영씨(26)는 집안 어른들이 독실한 불자인 탓으로 자신도 불교신자라고 스스로 여기고는 있지만 절에 가 법회를 보는 것은 겨우 “일년에 한두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나마 일년에 한두번 찾는 법회때마다 “매주 법회에 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해 보지만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도심에서 포교당을 꾸러가고 계시는 한 스님은 “포교를 위한 방법으로 제일 외에 주간별 정기법회를 개설하고 있다. 일요일, 평일 주·야간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이 예전에 비하여 비교적 늘었지만 아직 매주 법회에 참석하려는 불자들의 신앙생활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기적으로 매주 법회에 참석하

금주의 주제

매주법회 참석

‘나는 불자’ 신심 새롭게 다져

곳곳에 도심 포교당... 법회 참석 쉬워져

는 청년불자들의 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아무리 좋은 이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해 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뜻도 이룩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70년대 후반부터 산중불교를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 되면서 도심포교당이 급속히 늘어나고 규모면에서도 대형화 됐다. 집 근처 곳곳에 포교당이나 사찰이 생기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불자들이 절을 찾아 법회를 보기가 훨씬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불자들의 생활 기본원리이자 불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행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면서 우리 스스로 진정한 생활불교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사찰에 적을 두었다고 모두 불자인 것은 아니다. 매주 법회에 나가 생활불교, 실천불교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거기서 불자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가르침을 익힐때 참불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백화도량(상임법사 김효성)이 오는 16, 17일 1박2일간 불교 조형예술연구소 이기선소장과 함께 영주·안동지역 성지순례를 떠난다.

현장강의로 부석사 봉정사 제비문 등을 답사하는 이번 일정은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조사에 의해 창건된 고찰 부석사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돼 성지순례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고려 정종 7년(1041) 원웅(眞熊)국사에 의해 중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영종 부석사는 비록 본산(本山)은 아니나 전국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명찰로서 창건 때부터 고려대에

무량수전·극락전은 最古 목조건물

백화도량 영주·안동지역 성지 순례

결친 생생한 발자취를 보여주는 유물이 수도룩하다.

또한 안동 봉정사도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로 알려진 극락전(국보 제15호)을 비롯, 보물 제55호 대웅전, 보물 제448호 화엄강당, 보물 제449호 고금당(古金堂) 등의 값진 성보를 보존하고 있는 전국 유수의 고찰이다.

특히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은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로 유명하며, 인도 간다라식 건축양식의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8각지붕의 주심포(楹心包) 건물로서 지주(支柱)의 배흘림이 급한 것이 특색이다.

(02)929-0929

신행수첩

충효·예의범절 배운다

대구 관음사 무료한문교실

한문교육을 통해 세계화를 지향하는 불교 문화의 중심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서 활발하다.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가 이런 취지로 오는 17일부터 ‘무로 한문교실’을 연다.

어린이반과 중·고등부반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한문교실의 주교재는 ‘사자소학’이다. 사자소학은 충효사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예의범절과 친구간에 지켜야 할 신의, 삼의 지혜를 가득 담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 자라나는 우리 동량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비움의 길잡이로써 손색이 없다.

강의는 영남불교대 교수 4인이 번갈아 가면서 재미있는 예기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어서 알찬 배움터가 될 것이다.

또 관음사는 한문교실 뒤에

종물과와 기타교실을 계속해

열어 공부의 취미생활도 하도록 돕고 있어 신나는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 강의는 매주 일 오전9시30분(어린이반), 오후2시(중·고등부)

(053)474-8228

불국토 가꾸는 자비심

자원봉사시민대학 열어

무심코 바라보지만 하던 텔레비전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하는 일, 우리 주변의 환경을 두팔 걷어부치고 지키는 일도 사찰에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꼭 필요한 일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불자들의 올바른 신생활을 이끌어 줄 제3기 자원봉사시민대학을 열었다.

방송모니터교육·자비수지침·불교경전교육 등 10개 분야별로 개설된 강좌는 우리 불자들의 삶을 보다 튼실하게 여어주는 소중한 인연의 자리가 될 것이다. (02)723-6258

김삿갓 머물던 용장사로

부산불교교육원 문화기행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는 수많은 유물·유적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부산불교교육원은 17일 경주 일대의 불교문화재와 유적지를 둘러보는 ‘우리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이번에 주로 둘러보는 곳은 용장골. 경주군 내남면 용장사는 말년에 승려가 된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이 기거한 곳으로 석불좌상과 삼층석탑, 마애여래좌상 등 보물이 산재해 있다.

특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수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애여래좌상은 나발이 선명한 머리와 평행선 음각이 절묘함을 자랑한다.

또 자연석을 지대적으로 이용한 삼층석탑은 자연지형을 이용해 웅장사 주위 어느 계곡에서나 볼 수 있도록 올려져



◇경주군 내남면 소재 용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민속학일기에 이 계곡을 발굴조사할 때 웅장사라고 쓴 기와조각이 발견되어 그 존재가 확인됐다.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문화기행에서는 삼릉골 마애불과 경주 남산의 삼존불을 비롯한 많은 불교 유적을 만날 수 있다.

(051)466-4080

부처님 마음 만나보세요

조계사 기초교리강좌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어

떻게 살아 보자.

오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주·야간으로 3개월간 운영되는 조계사 기초교리 강좌는 초심자에게 바른 불교이해와 그를 통한 올바른 신앙심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720-1390

청소년 정신건강 푸르게

악물남용예방운동

부처님 가르침인 5계는 참신행의 근본이며 불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속의 실천행이다. 특히, 불음주계는 비단 술뿐만이 아닌 마약이나 약물남용을 금하고 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대구·경북지부는 17일 대구백화점에서 대구역광장까지 악물남용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악물음에 대한 지식전달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용 책자와 전단지 배포할 예정이다. 건강한 청소년이 만드는 건전한 사회건설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때다.

위 캠페인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053)741-1411

생활속의 불교 ④

내가 나에게, 나를 위해 베풀 보시

부처님께서 자(慈)·비(悲)·희(喜)·사(捨)의 사무량심을 가르치셨다.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자비희사의 정신을 으뜸 가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량심은 한 마디로 나와 남, 나와 상대 사이에 드리워진 경계선을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생명을 지닌 모든 이여! 행복하고 평안하라.’한다면 그것은 자심(慈心)이 된다.

또 남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비심(悲心)이 된다.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여기면 희(喜)요, 편견·분별을 버리고 돌 아나기 보면 사(捨)이다.

고로 자비희사는 함께 나눔, 함께 누림, 함께 함이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공심(公心)·공체(共體)로서 공생·공용·공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相依] 서로 도우며[相輔] 산다. 더불어 사는 것이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란 이 같은 상의·상보의 자연법칙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물론 자기의 소득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하는 사람은 자신이다. 남을 돕는 데 쓰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쓰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자기가 누리는 부·명예·권력이나 향락까지도 상대가 있음으로써, 상대의 협조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간에 일어난 현실이다. 고로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경우라도 각자의 인행엔 최소한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 ‘나의 즐거움, 나의 누림이 남의 속쓰림, 남의 빈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움켜 쥐려는, 재화·권력·명예 따위를 움켜쥐려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줄어든다. 반대로 비우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증장된다.

움켜쥔 데서 오는 기쁨, 그 갈애·집착의 기쁨은 비운 데서 오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비움의 기쁨을 법희(法喜)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다 비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누리는 생활을 강조하신다. 무주상(無住相)보시의 공덕을 찬탄하신다.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마음의 향기로써 돌 아나기 나누고 누리는 삶, 나와 너의 경계선이 거두어진 삶의 현장에 서면 비로소 불국정토가 실현된다고 가르치신다.

비움의 자리, 거기에선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진다. 고로 그 자리에 서면

보시란 ‘내가 내게 주는 것’ ‘남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었다, 받았다는 의식이 없다. 그대로 무주상인 것이다.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오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 우리 모두는 ‘너와 나’가 아니라 하나, 한마음이다. 하나요, 한마음이니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다툴 것이냐. 누가 누구의 것을 빼앗을 것인가. 오로지 ‘나를 위해서’라고 누가 말할 것인가.

더불어 사는 이 세계의 상대성을 생각할때 함께 나눔·함께 누림·함께 함은 바로 우리들의 생활 덕목(德目)이자 불법을 따르는 길이요, 부처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협찬: 임재환